

## 순창조씨의 뿌리

### ③ 역대주요인물 (고려조)

#### ○ 순창조씨를 세상에 현성으로 드러 나게 한 大將軍 5世 趙仁平

고려 명종 7년(1177) 鄭世猷와 같이 계룡산의 토적인 亡伊와 亡所伊 등을 토평한 공으로 일등공신이 되고 이를 계기로 향리를 떠나 벼슬길에 올랐다.

명종 말년(1197) 金吾衛郎將同正에 이어 檢校尉大將軍에 이르렀다.

#### ○ 순창조씨문중의 기틀을 마련하고 門 下侍郎平章事に 증직된 6世 趙光明

일명은 趙光肅이며 벼슬이 興威衛散員同正에 이르러 증직이 金紫光祿大夫 門下侍郎平章事(정 2품 벼슬)이다.

#### ○ 左右衛大護軍을 역임한 7世 趙文琬 (1263 - 1332)

明經科에 급제하고 충렬왕 14년(1288) 伊川監務檢勳農使를 지냈으며 入關賓副使, 承奉郎中門祇候 를 거쳐 충렬왕 31년(1305) 中顯大夫 左右衛 大護軍에 이르렀다.

#### ○ 중국에서는 문명을 크게 떨치고 고려조에서는 藝文館 大提學, 春秋 館事 上護軍에 오른

#### 8世 趙廉 (1293 - 1346)

처음 이름은 永堅이며 자는 魯直이고 호는 中齊요 시호는 文貞公이다. 충렬왕 27년(1301) 9세때 戶部 奉同正을 지내고 충숙왕 2년(1315) 23세때 文科에 급제한 후 淸州 司錄參事를 지내다가 원나라에 들어가서 여러해 동안 공부하고 돌아왔다. 충숙왕 11년(1324)

藝文館 檢閱에 이어 동主簿, 供奉을 지냈으며 충숙왕 15년(1328) 도다시 원나라에 들어가서 判科에 급제하고 瀋陽等路軍民 總官知府事를 역임하였다.

그후 귀국하여 충숙왕 17년(1330) 典理佐郎으로 있을 때, 종묘의 신주 모시는 차례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正言으로 재임시에는 獻納, 許崑, 正言鄭天濶 등과 같이 韓宗愈, 崔安道 등의 부정을 탄핵한 바 있다. 충혜왕 2년(1332) 아버지 상을 당하여 상을 마친 다음 通直郎 左獻納 知製教를 거쳐 奉翊大夫 中書舍人知製教로 승진 金魚袋를 받았으며 충숙왕 복위 3년(1335) 奉常大夫 中書舍人으로 紫金魚袋를 받고 廣陽道按廉使로 나갔다가 충숙왕 복위 6년(1338) 中正大夫右司儀를 거쳐 進賢館提學知製教로 이직하였다.

충혜왕 4년(1343) 원나라 사신 染赤 등이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사하는 조서를 반포케 하니 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교영하고 정동성에서 조서를 들었으나 사신은 왕을 발길로 차고 묶어서 원나라로 돌아가서는 왕이 조서를 교영치 아니하였다고 무고하였다. 원제는 왕을 국문하라고 영을 내려 결국 潮州揭陽縣으로 귀향길을 떠나게 되었으나 고초가 심하여 도중에서 1344년 돌아가 시니 당시 文貞公은 右司儀로서 左司儀 王伯과 더불어 “군신은 일체나 회복을 함께 하는 것이 신하던 도리 이므로 논죄하소서”라고 상소한 바 충목왕이 그 간곡한 상소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더욱 중용하기에 이르러 奉翊大夫 密直副使로 승진하고 충목왕 원년(1345) 密直副使 藝文館大提學 同知 春秋館事, 上護軍을 거쳐 같은 해 匡政大夫 政堂文學 密直司使, 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 上護軍으로 승진하였다.

文貞公은 원나라에서 학문과 명망이 높고 당세의 명유로서 유림과 동방이 원나라 조정에 많이 있어 경서와 사기를 장란하고 교유하기를 오래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왕이 원나라에 들어 갈 때에는 매양 임금을 모시고 시종도 하고 사절도 받들고 독대도 하였다. 이때 해마다 우리나라의 많은 여자를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원나라로 끌고가니 그 부모는 피눈물로 작별하고 통곡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또한 연락부절하게 우리나라를 오가는 원나라 사신들을 잘 선택하지 않고 범부를 기용하므로서 나라를 속이고 농락하는 등 그 폐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이 두가지를 외국배신으로서 홀로 묘당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니 이는 당시 기고만장한 원나라의 자세를 감안할 때 그 누구도 감히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은가족이 둘러가며 읽어봅시다)

文貞公은 이와같은 원나라에서는 거유로서 문명을 크게 떨치고 고려조에서는 문신으로서 명리를 멀리하고 대도의 길을 찾아 국사를 다루었으며 청렴결백하게 부정은 정의로서 대처하였다.

참고 1. 文貞公은 충렬왕 19년(1293) 괴산 송평에서 탄생하시고 충목왕 2년(1346) 원나라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54세이다. 관을 받들고 귀국하여 송도안에 장재하였으나 묘는 실전되고 경경부인 羅州 陳氏 역시 괴산 송평 학령에 장사하였다고 전해오나 실전하여 그 학령에다 단산소를 모으고 양위분 같이 제사지낸다.

2. 文貞公의 사적은 輿地勝覽, 姓苑叢錄, 鄭麟趾의 麗史本傳, 權近의 東賢史略 등에 있고 유고는 東文選에 실려 있다.

## ○ 손가락을 불태워 어머니의 병이

### 치유되기를 축원한 9世 趙紳

(1319 - 1385)

시호는 良度公으로서 고려 충숙왕 16년(1329) 通仕郎 司監寺同正을 지내고 공민왕 10년(1361) 朝奉郎 永福都監 判官으로 金魚袋를 받았으며 奉善大夫 小府小尹, 奉常大夫 水原府使, 中顯大夫 監門衛大護軍, 興衛大護軍, 中政大夫 典儀令, 軍器監, 通儀大夫 忠州牧使등을 역임하였다.

우왕 5년(1379) 禮儀判書에 이어서 版圖判書, 奉翊大夫, 開城府尹, 上護軍을 거쳐 우왕 11년(1385) 誠勤佐理功臣, 重大匡 淳城君에 봉하였다.

良度公은 일찌기 아버지 文貞公을 따라 원나라에 수행하였는데 서기 1346년 부친이 병을 얻어 신고하게 되었다. 원제가 어의에게 명하여 진료토록 하였으나 병세가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게 되자 손가락을 불태워 약에 타서 지성으로 축원하니 부친의 병이 끊어졌다가 소생하므로 인하여 세상사람들은 燒指公이라 일컫었다.

참고: 良度公派의 시조이며 평택, 청주, 여주, 서산, 해미, 양지, 지평, 단양, 예천, 상주파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基, 炳, 丙, 燮 형질기준하여 20대조 고이다.

## ○ 不事二君의 충심에서 괴산 송평으로 낙향하여 피세정을 세우고 두문불출한 9世 趙紳 (1324 - 1402)

호는 避世公으로서 文貞公의 넷째아들이며 良度公(燒指公)의 친아우이다. 成均進士에 합격하고 壬申年(1392) 고려가 망하자 “충신은 두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라는 충심에서 모친을 모시고 괴산, 송평으로 낙향

하여 오다, 二君에 겹자를 지어 避世亭이라 현판과 자호하고 “春入西山 尋古跡, 月從東海間高巖” 봄이 서산(서산은 백이숙제가 온거니 수양산을 뜻함)에 왔으나 그 고적을 찾아온것 같고 달은 동해(동해는 동해에 피신한 魯仲連을 뜻함)에 떠올라 그 밝은 빛은 마치 높은 의표를 쫓는 것 같다”라는 절구 한수를 지어 게시하고 그 정자에서 종신토록 이름과 몸을 숨기고 굳은 충절을 지키며 伯夷叔齊(중국 주나라의 건절적인 형제성인)와 顏回(중국 당나라의 건절적인 충신)의 절개를 찬미하며 西山之節을 본받았다. 괴산문광 七忠祠에 제향하다.

참고 1. 避世公派의 시조이며 괴산, 중원, 음성, 진천, 충주, 문경 등지에 세거하여온 각 파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학질 기준하여 20대 조고이다.

2. 西山之節: 백이와 숙제가 충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양산에서 삼베 옷을 입고 고사리를 캐어 먹으면서 은둔생활한 것을 말함.

3. 避世翁에게 드린詩(고성인 李源 호는 容幹) 千古直行惟一士 四時貞節特孤松 三韓前後誰仁儀 避世亭高絕峽中 (친고에 굳은 행실은 오직 한 선비요, 사시에 굳은 절개는 특별한 외출뿐이다. 삼한전후에 인과 외를 다한 이가 누구인고, 피세정이 절협중에 높이 서 있도다)

## ○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西山 농막으로 돌아와 은둔하고 이조에서 제수한 벼슬을 모두 사양한

### 10世 趙璣 (1357 - 1416)

호는 西山公이며 공민왕 23년(1374) 司馬試에 합격하고 우왕 8년(1382) 進士가 되었으며, 같은해 文科에 등제후 典敎寺郎을 거쳐 宣德郎 司憲府 紆正(1383), 承奉郎 司宰寺丞(1385), 通禮門舍人(1387), 司設署丞(1388)을 역임하였다.

1389년 典法佐郎으로 金魚袋를 받고 吏曹正郎을 거쳐 朝奉郎 弘福都監判官(1390)으로 紫金魚袋를 받았으며 이어서 通直郎, 禮曹正郎, 兵曹正郎, 奉善大夫 典校副令(1391), 奉列大夫 林川郡事(1392)를 역임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林川郡事에서 물러나 平山(일명 西山) 농막으로 돌아와서 西山(수양산의 일명)이라 자호하고 은거하며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하고 西山之節을 본받았다.

태종대왕과는 진사 동방이며 성균관에서 같이 공부한 정의로 順興府使, 工曹典書, 光州牧使(1406)등을 수하였으나 모두 사양하고 유명으로 묘비에도 이조에서 제수한 관호를 쓰지 아니하였다. 또한 양주일원(은농의

산 옛이름)을西山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이다.

밭과 1. 양도공과 후손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基, 炳, 丙, 燮 학필 기준 19대 조고이다.

2. 묘는 양주서산에 있다 한때 溫陵 영역으로 들어가 영조15년(1739) 표석은 매몰당하고 수축은 물론 심지어 성묘나 벌초도 못하여 묘의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정종 16년 봄(1792) 임금이 여주 顯陵園 행차시 23세손 여주 趙章夏의 노상, 어가 앞에서 간절한 상인으로 개봉축하기에 이르고 22세손 가주 趙重參은 괴산과 충주에서 동전 160금을 마련하여 양주군 장흥면 가마동에는 13두락, 밭 하루가리를 위토로 봉하였다.

(편찬한 사람 대종회 회장 조덕선)

## 재경이사친목회의 발전을 기대

- 재경종친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

재경종친의 모임인 재경이사친목회를 1989년에 조직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종사도 의논하고,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 모임은 대종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친목도 도모한다는 뜻에서 재경이사친목회라고 이름하였으나 사실은 재경종친회와 다를바 없으며 재경종친은 모두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임의 임원은 대종회 임원이 겸하고 있으며 두달에 한번씩(홀수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독립회계로 하되 적립금은 개인지분제(총지립금÷회원수)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새로 입회하는 분은 입회할때의 개인지분금을 납부하며 6개월이상 회비 미납시는 참여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원 애경사시는 적립금에서 10만원과 회원 1인당 만원씩 거출하여 그중 20만원을 합쳐서 30만원을 부조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36명, 뜻있는 재경종친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로 입회신청을 하여 주기를 바란다.

## 괴산종친회장 趙俊善(행정) 연임

- 총무에는 趙仲湜(승헌) -

괴산종친회 대의원총회(94.1.9)에서 괴산종친회장에 는 조준선(행정) 종친이 연임되고 총무에는 조중식(승헌) 종친이 선임되었다.

## 사정공(11세旅) 동래공(12세棕) 선진공(13세澣) 3대의 선조묘 이장결의

- 위선과 화합의 계기 되었으면... -

괴산종친회 대의원총회(94.1.9)에서는 찬반 격론끝에 사정공, 동래공, 선진공등 세분의 묘소를 현재의 위

진인 괴산 평덕리 아미산에서 송평리 은행정 뒷산(14. 송제공 묘소 웃자리)으로 이장하기로 결의하였다.

세분 선조의 묘를 이장하게 된 경위는 아득한 옛날(연대불명)로 거슬러 올라가서 11세 사정공 묘소 웃자리에 후손인 탐동파의 선조 18세 泰壽, 19세 澣의 묘가 자리잡은데서 부터 비롯되었다. 뿐만아니라 세분 선조묘소 주변은 여러 후손들의 묘가 둘러싸고 있으니 "안되면 조상의 탓"이라고 이로운데 일가간에 반목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시대는 변해서 산업화의 물결속에 시골에서는 위토경작 기회현상이 두드러져 조상의 시제나 묘소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자손들은 자손들대로 조상을 모시기 위한 주위환경이 옛과 같지 아니하니 분산된 조상의 묘를 한곳으로 모으고, 시제도 하루에 한곳에서 한번으로 마치며 위토는 수익성사업으로 전환하는등 세대는 시시각각으로 변천해 가고 있다.

우리 문중도 이에 부응하고 종친간의 오랜 갈등을 씻으며 화합하는 차원에서 원칙과 절차를 떠나 웃어른의 묘를 이장하기로 일대 결심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세분 선조의 묘를 이장하면 선대의 묘 전부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송평 한곳에 모시게 되니 뜻깊은 일이며 묘소관리, 시제등에 있어서 후손들의 부담도 많이 감소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일단 중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상 이제까지의 모든 양금과 조상의 탓? 이란 때를 씻어 버리고 다같이 힘을 합쳐 이장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이장할 곳이 힘어 천하명당?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우리 문중에 영광과 번영만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 충주, 증원종친회 총회 개최

- 회장에 趙泰 - (필승 연임) -

- 총무에는 趙龍柱(이안)

충주 및 증원종친회 총회가 94.2.27. 충주한마당부페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충주 및 증원군 지역의 많은 종친과 대종회 조덕선 회장 조근식 사무국장 참석리에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조태일 현회장이 연임되고 총무에는 조용주 종친이 선출되었다.

## 宗친의 동정

○ 필승 趙庚植(조태일 장남) 연세대에서 요업공학 박사 학위 받음.

○ 갑산 趙炯日(능암국교 교장) 청년퇴임과 동시 국민훈장 동백장 받음.

○ 안촌 趙範載 사회사업 유공으로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받음.

○ 필승 趙泰 - 고소득세 납부유공으로 재무부장관 표창 받음.

## 재정 결산보고

(93. 4. 1~94. 2. 28)

내 용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합	계	34, 809, 062	1, 590, 400	33, 218, 662
이 월 금	(93. 4. 1)	25, 574, 587		
죽 보 대 금	(5 질)	200, 000		
회 비 및 찬 조 금	(93. 3. 31~93. 11. 30)	5, 685, 000		
회 비 및 찬 조 금	(93. 12. 1~94. 2. 28)	3, 150, 000		
예 금 이 자	(보통)	199, 475		
종보 1 호발간 및 우송비			379, 250	
회비영수 및 독촉엽서			161, 250	
종보 2 호발간 및 우송비			254, 150	
조 화			100, 000	
종보 3 호발간 및 우송비			295, 250	
격려금	(청주, 충주총친회)		400, 500	

## 광 고

매년 4월1일(오전11시)은 칠층사 제향일입니다.

다같이 참여하여 우리 문중에서 배출한 선조 일공분 충신을 추모하고 빛나는 위업을 기리며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합니다.

### 회비납부실적부진(30%) 유감

“협조바랍니다”

송금구좌	우 체 국	011775-0046769-11	조 덕 선
	농 협	067-01-221618	
	국 민 은 행	025-01-0315-181	

## 회비 및 찬조금 총괄표

기 간	구 분	인 원	회 비	찬 조	계
93. 3. 31~93. 7. 31	(종보 2 호)	147	2, 940, 000	30, 000	2, 970, 000
93. 8. 1~93. 11. 30	(종보 3 호)	111	2, 165, 000	550, 000	2, 715, 000
93. 12. 1~94. 2. 28	(종보 4 호)	152	3, 040, 000	110, 000	3, 150, 000
	계	410	8, 145, 000	690, 000	8, 835, 000

### 회비 및 찬조금 납부자 현황

(93. 12. 1~94. 2. 28)

1. 특별찬조헌종친 : 탐동과 조태하 80,000원  
삼고과 조병식 30,000원
2. 회비단체납부파 : 송현파 37명 760,000원  
원총파 74명 1,475,000원
3. 개별회비납부자명단

평택 : 광기, 일주, 용찬, 용철, 용선, 용대, 병필,  
용락, 용덕 서산 : 병만 지평 : 건상, 준상 해미 :  
광업 (25,000원) 여주 : 금상, 유상, 성택 예천 :

성규 청주 : 태운, 태성 진천 : 윤식 팔송 : 찬주,  
용주, 재식, 영식 삼고 : 병식 갑산 : 관식 송현 :  
준식 원종 : 영식, 태선 가주 : 덕주 탐동 : 태하,  
창주, 병준 마전 : 원식, 경식, 홍식 파불명자 :  
광주 (은행), 병각 (농협), 태빈 (채신) (이상 40명  
805,000원)

※ 회보 3호중 평택과 병기는 “봉기”로 파불명자 용규  
는 “예천과”로 바로 잡습니다.

※ 1994년도 회비는 편의상 명년에 일괄 납부 바랍니다

※ 원총과는 총80명중 이미 납부한 7명 125,000 원은  
공제하고 납부되었음.